

교차로

승가



행정부장관 감사패 받아
저우 경찰청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10월 21일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경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인 그룹홈 경로원 개원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10월 24일 인천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그룹홈인 경로원 개원식을 갖고 노인잔치를 열었다.



'21세기 제주의 비전...' 심포지엄
시몽 제주불교사회문화연구소장은 7일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룸에서 '21세기 제주의 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고생 합동수계법회
정우 구룡사 주지(bm 사장)는 11월 말 미래불교의 기둥이 될 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생회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남북교류 불교인정 발표
중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은 민주평화 통일위원회의 종교분과 위원회가 10월 30일 주최한 제39차 회의에서 '남북 교류에 관한 불교계의 입장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회장에
송죽 동원정사 주지는 10월 24일 포천 배어스타운에서 개최된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대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됐다.



관내 노인초청 위문공연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인 주지는 10월 31일 포교원 4층 옥상에서 진구청관내 60세이상 노인 5백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가졌다.



백고좌 법회 회향·수계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16일 오전 11시 칠곡분원 연흥사에서 제9회 백고좌회 회향식을 겸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53)766-3437

"물질의 정신화로 인간성 회복"

동국대 송석구 총장



오늘의 사회는 국제화 시대·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첨단과학시대를 이끌어갈 올바른 인간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곧 인류사회가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 대학이 걸잡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물질적 기술주의, 기능적 합리주의가 대량생산·대량판매 등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한 반면, 이에 따른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성장우선 사회에서 인간생존 우선 사회·인간존중 사회를 지향하고 물질의 정신화를 이루어 내야한다. 이처럼 기술·합리주의에서 인간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주의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갖는 인간, 곧 불교적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욕망이 비대한 오늘의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류사회가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불교계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이같은 인류사회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다. 평등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축적하는 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결국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진스님 입적



동광당 명진대화상이 1일 합천 해인사 길상암에서 원적했다. 세수 60세 법랍 46세.

영결다비식은 5일 법전 해암 일타 도전 등 해인사 원로대덕스님들과 50여명의 상좌 및 순상좌스님, 재가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은 39년 전복 정음생으로 16세때 신원사에서 영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60년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62년 해인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후 74년부터 중앙총회의원을 두차례 역임했으며, 82년에는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해춘스님 입적



전국비구니회 교문 해춘스님이 법랍 48세, 세납 80세를 일기로 6일 해인사 보현암에서 입적했다. 스님은 1951년 창호스님을 은사로 득도, 52년 해인사·인국대선사를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61년 통도사 자운대선사를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2년 해인사 보현암을 장건, 비구니선원을 개설했다. 85년~95년까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했으며, 88년~89년까지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청소년포교에도 기여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해인사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치뤄졌다.

21세기 불교계 대학의 역할" 주제강연 요지

"연기·무아사상으로 세계선도"

용곡대 기타바타케 총장



앞으로는 대학전입(大學全入) 시대가 도래하여 대학간의 자유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곧 대학이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정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생을 받아 들일 수도 있게 되지만, 동시에 대학의 교육연구의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시급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각 대학은 한층 더 건학정신을 선명히 하여 고조시키고, 대학의 개성과 특색을 보다 명백히 하여 이를 사회에 내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불교계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훌륭한 건학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그 특색을 크게 발휘해야 한다.

또 세계종교로서 불교의 독자적인 특성은 평화적 종교, 적응성(適應性)·적합성(適合性)을 가진 종교, 포용성·관용성을 가진 종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오늘의 불교계 대학은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개혁의 문제를 선도해 나갈 책무도 가지고 있다. 21세기 사상의 리더 임무는 불교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불교의 연기·무아·공의 가르침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지향하며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nia.com)

"화장문화 보급 앞장"

경기생명나눔회 준비 이광우씨



울금고 이사장

31일 까지 화장문화 찬성 서명자 1천1백68명, 장기기증 서명자 83명 등 연인원 7천여명이 거리캠페인 공연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및 화장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생명나눔실천회 경기·광명지부 부를 빠른 시일안에 창립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거리캠페인을 통해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기증의 거룩한 뜻을 알리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10월 10~31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서천시(주지 진석)가 매주 토·일요일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광명시 상가지역 광장거리에서 개최한 '화장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후원한 이광우(55) 광일새마을회 부회장이었다.

"총람발간·불교행사 대중화"

제주불교총련 새 회장 수암스님



"제주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31일 관음사 포교원에서 개최된 제주불교총연합회 임시총회에서 2대 회장에 선임된 수암스님(태고종 제주총무원장·금릉사주지)은 종단 및 사찰과의 단합을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제주불교를 이끌 스님은 임기 동안 제주불교사를 정립시킬 수 있는 총람을 발간한다는 복안이다. 이틀위해 1차 사

점으로 각 종단과 수행단체 등 불교관계의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님은 "관람대제 등 각종 불교행사를 한라문화회 등 각종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해 불교행사를 정례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태고종 제주총무원장, 제주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등을 맡고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교차로

재가

학술회의 관계자 초청 오찬

손재석 위대대 총장은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전원을 초청, 격려 오찬을 가졌다.



보험업무 '태고' 설립

김철희 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회장은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3가 삼창빌딩 6층에 '태고'를 설립하고 현관식을 가졌다. 태고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해 각종 보증을 취급한다.(02)392-6233



청소년단체 지원금 전달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10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98청소년단체 육성지원금'으로 대불련 부산지부와 부산불교 중고등학생 지도위원회 등 3개단체에 총 5백50만원을 전달했다.



오스트리아 빈대서 강의

김광규 한양대교수(독문학·시인)는 오스트리아 빈대학 초청으로 11월부터 한학기 동안 한국학과에서 한국현대문학을 강의한다.



日 티벳 아시아회의 참석

최일산 필곡청소년센터관장은 9일 티벳지원그룹 한국대표 자격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티벳지원 아시아 지역 총본부 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국했다.



-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지선스님이어야 가능합니다 -

끊이지 않는 혼란으로 상처받아 온 조계종단의 자존과 위상을 살리겠습니다.

- 월주스님의 3선은 견잡을 수 없는 혼돈만을 가져옵니다.

종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출마를 강행한 월주스님의 당선은 그 시시비비를 떠나 여타 종권 추종세력의 반발과 불복, 심지어는 세속적 송사까지 가세될 수 있는 혼돈의 4년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종정에하는 물론 원로스님들과 전 종도들의 뜻을 무시하며 3선을 강행하고 있는 송월주 총무원장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29대 총무원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지선스님! 왜 그가 종단 안정의 책임자인가?

첫째, 지선스님은 정화세대와 개혁세대를 잇는 세납 53년, 법납 37년의 튼튼한 허리입니다. 정화세대 스님들의 종지선양에 대한 굳은 의지를 익히 알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스님들의 바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지선스님이기엔 편향 없이 전통과 미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대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가 아니라 종지와 종풍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세대 이전'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화합의 디딤돌, 지선스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총무원장을 3임까지 하려는 개인적 욕심이 현재 종단 혼란의 근원임을 간파하고 지선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을 공약했습니다. 4년을 오직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후회없이 총무원을 떠나겠다는 '단임의지'는 4년 뒤에 치러질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책대안의 건전한 각축장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지선스님의 단임 4년은 소란없는 종권교체의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셋째, 지선스님은 종책을 근본으로 한 종단운동을 실천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선스님의 종책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스님들과 숱한 날을 지세우며 꼼꼼히 챙긴 7개 분야 70대 공약! 그래서 지선스님의 종책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종도들이 건의하는 종책에 대해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 역동적인 총무원장!

각계 지도층과 타 종교인과의 모임에서도 회의를 주도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소신있고 능력있는 총무원장! 지선스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적으로 검증된 지선스님의 도덕성과 사회지도력은 새로운 시대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 있는 불교, 사회를 이끌어 가는 불교! 지선스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종단의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며, 종책을 바탕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제29대 단임 총무원장, 지선스님! 그 진솔함 앞에 누가 명분없는 혼란을 조장하겠습니까?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